

일주문



일면 스님 광동학원 이사장 추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4월 27일 광동학원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성타 스님 제24회 총담재서 추모식
경주 불교사 주지 성타 스님은 4월 28일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신라문화원이 개최한 제24회 총담재서 추모식 추모식을 진행했다.



수원 용주사 효행백일장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5월 19일 용주사 경내에서 제1회 효행백일장을 개최한다. (031)239-9391



평창 월정사 천년의숲 걷기대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월 12일 오대산 일대에서 천년의숲 걷기대회를 연다. (033)339-6800



속초 신흥사 축구대회
속초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5월 12일 속초 종합운동장에서 신흥사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대구 수도암 사찰음식 전수
대구 수도암 주지 승원 스님은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대구 소재사(주지각만)에서 사찰음식전 '큰나무집 밥' 대표 등과 사찰음식 전수를 시연했다.



성주 심원사 산신각 낙성식
성주 심원사 주지 응관 스님은 4월 29일 3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산신각 낙성식 및 자비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군산 성흥사 보살계 수계법회
군산 성흥사 주지 송월 스님(군산 사암연합회장)은 4월 29일 보살계 수계법회와 생전에수재를 봉행했다.



금강대 천대불교문화예술관 낙성식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5월 6일 금강대 내에 천대불교문화예술관 낙성법회를 했다.



대불청 전국임원전진대회
정우식 대불청 회장은 4월 28-29일 수원 용주사에서 2012 전국임원전진대회를 개최했다.

강남불자 힘 모아 보시행 펼칠 터

5월 10일 봉은사에서 강남불자대법회 여는 정우 스님

"강남 불자들의 힘을 모아 불자 자긍심을 높이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강남 지역 조계종 사찰을 모은 '강남지역 사암연합회'를 발족한 정우 스님은 사암연합회 첫 행사로 5월 10일 서울 봉은사에서 '자비나눔을 위한 강남 지역 불자대법회'를 봉행한다.

"강남 지역 불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또 종단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고민에서 이번 불자대법회를 열게 됐습니다. 자비나눔 정신 실천으로 이날 모인 기부금은 불교계 공익법인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날 불자대법회에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 조계종 35개 사찰 스님과 신도 6000여 명이 참석한다. 법회는 前중양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법문을 시작으로 박칼린 한국예술원 교수, 손숙 前환경부장관의 진행 하에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 등의 축하 무대가 이어진다. 지난 1월 임직처 前조계종 총무원장 직관 스님의 치아사리 천전 자리도 마련된다.

스님은 사암연합회 활동이 강남 지역 개별 사찰의 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스님은 "강남지역의 경우 봉은사 외에는 큰 전통사찰이 없었고, 교류가 많지 않았다. 불자 의식 보다 절 신도라는 의식이 강해 대중 포교에 계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정우 스님은 2011년 구룡사를 비롯한 자신이 장건한 모든 사찰을 조계종 공찰로 등재한 바 있다. 또한 정우 스님(포이동 구룡사 회주)은 도심포교 현장의 1세대로 서울 포이동 구룡사를 비롯해 일산 여래사, 문정동 법계사, 인천 보명사, 분당 연화사 등을 건립하거나 크게 도약시켰다. 미국 원각사, 캐나다 대각사, 호주 정법사 등도 세웠으며 인터넷 방송 붓다TV, 뮤지컬 '맘마미아' 제작사인 신시컴퍼니 설립해 포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

스님은 "조계종 사찰은 종지를 붓대하며 사찰을 공유해야 한다. 또 지역 사찰은 지역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공동 법회와 행사를 정례화해 그 힘을 종단과 사회에 회향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사암연합회는 먼저 강남 지역 사찰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면서 수도권과



강남지역 사암연합회장 정우 스님

지역민 포교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발판으로 점차 아프리카나 북한 등 해외 원조까지 발을 넓혀갈 계획이다.

정우 스님은 "구룡사 등 강남 지역 사찰은 이미 지역 저소득 계층을 비롯해 해외 저개발 국가 등에 지원하고 있었지만 연합회를 통해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불교계가 드러내지 않고 많은 일을 해왔지만 이제는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금산사, 월주 스님 조실 추대법회

조계종 17·8대 총무원장을 지낸 월주 스님이 전주 금산사 조실로 추대됐다. 전북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4월 28일 금산사 방등계단 특별법단에서 20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태공당 월주 대종사 조실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명종5타를 시작으로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월주 스님 행장소개, 예경삼배, 청법가, 법어, 축사, 축가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원행 스님은 금산사 본말사 사부대중을 대표한 추대사에서 "스님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수행의 이념으로 제시해 후학들의 이정표가 됐다. 어두운 세상에 큰 등불과도 같은 스님을 이제 조실스님으로 모시고자 한다"며 "수행과 자비 실천이 으뜸인 모악산 금산사에 새 기운이 일어나도록 응원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 금산사 부주지 성우 스님과 총무국장 원혜 스님이 조실의 상징인 주장자와 불자를 헌정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법좌 위에 오르는 것은 '조실'이라는 이름뿐이요, 온몸은 세간 속에서 중생들과 함께하는 일이니 세간을 모르면 안된다"며 "과분한 일이지만 후학들과 같은 지향점을 향해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일로서 받아들이고 부처님같이 말하고, 부처님같이 생각하고, 부처님같이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대중과 손 맞잡고 깨달음의 경전이 되도록 정진하겠다. 바깥에서 진리를 구하지 말고 자기 마음자리에서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 불교학 연구 중심 되도록"

제20대 한국불교학회 회장 선출된 김용표 동국대 교수



"한국불교학회를 한국불교학계를 대표하는 국제적 학회로 성장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창립 40주년을 앞둔 한국 불교학회가 4월 27일 임기 2년의 20대 회장으로 김용표 동국대 교수를 선출했다. 현한국불교학회 회장 김용표 교수는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20대 회장직을 수행한다.

김용표 교수는 "교과부 우수학술지 선정과 학회 40주년을 앞두고 학회장을 다시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하지만 불교학 연구에 정진하고 있는 학자들을 대표하는 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장 재임 소감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98년부터 시작한 학술지 등재제도를 2014년 12월 완전 폐지하고 각 분야에서 우수학술지를 선별해 매

년 1억 5000만원 씩 5년간 지원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수학술지 선정 여부에 따라 학회 발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우수 학술지 선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우수 학술지 평가는 세계 논문 인용회수 등 기준 등이 적용된다.

김 교수는 "이제 한국 불교학계를 넘어 국제적인 학회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1차 임기 동안 완성치 못한 과제를 중심으로 학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구역량 집결 및 국제학계 교류활성화 △국제적 학술지 발굴을 △신진학자 발굴 위한 불교학진흥상 시상 △인접학문간 학제연구 강화 △전통사찰 제후이론기반 제공 △학회운영비 주주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학회는 감사로 황인규(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와 최홍남 (중앙승가대 역경학과 교수)를 선임했다. 신임 이사에는 모주 스님(동국대), 경성 스님(중앙승가대), 고영섭 교수(동국대)를 각각 선임했다.

노덕현 기자

뉴욕타임스 '법륜 스님' 인터뷰



미국 뉴욕타임스가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 이사장)을 대북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인물로 비중 있게 다뤘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28일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에서 법륜 스님은 어린 시절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를 꿈꿨지만 고등학교 시절 도문 스님을 만나 사회활동에 눈을 떴다고 회고했다.

스님이 인도 등 제3세계 국가 문제에 치중하던 스님이 대북지원 사업에 관심 가진 것은 지난 1996년이다. 스님은 압록강변에서 누더기 차림의 아픈 북한 소년을 보고 대북 지원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사연 등에 대해 인터뷰를 나눴다.

이를 계기로 탈북자들에게 식량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좋은 벗들"이 압록강을 건너다 익사한 탈북자들의 시신을 공개한 것은 북한 기아 사태를 알린 첫 공식 기록이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소개했다.

정혜숙 기자

수불 스님, 일본 다이쇼대 간화선 특강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법어사 주지)은 4월 27일 일본 도쿄 다이쇼대학(大正大學)에서 다이쇼대학 학생과 연구원, 교수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선종-역사와 현재'를 주제로 특강했다.

수불 스님의 이번 특강은 일본 다이쇼대 종합불교연구소(소장 高橋尚夫, 다카하시 히사오)의 초청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스님은 간화선 역사와 수행법에 관해 강연한 뒤 약 한 시간에 걸쳐 간화선 실습 시범을 보였다.

다이쇼대 관계자는 "한국 간화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정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이 많이 참석해 진지하게 법문을 경청하고, 실제 간화선 수행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많은 흥미를 느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노덕현 기자

"화합의 등불로 자비 전함"

구미시암聯 봉축연등축제

구미불교사암연합회가 4월 28일 구미송정공원 공연장 및 원평분수공원에서 봉축연등축제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법성 스님(해운사 주지)을 비롯한 이현희 구미경찰서장 등 7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번 축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구미불교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개최됐다. 법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자비의 마음속에서 모든 중생이 화합하는 등불을 밝히자"고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집이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모집